

KOCHAM

Economic Briefing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Inc

2015년 6월 10일(수)

【 미국 경제 동향 】

- 1) 한미, 9월부터 국세청 금융계좌정보 교환
- 2) "IMF, 위안화 SDR(특별인출권) 편입 안 돼", 해킹보복 칼 빼든 미국

【 해외 경제 동향 】

- 1) EU,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하나
- 2) 일본 1분기 GDP 성장, 빨라진 경제회복세

【 산업·시장 동향 】

- 1) 미국 Target, 자사주매입·배당확대 계획 사전 유출
- 2) 도쿄해상, 8.3조원에 미국보험사 HCC 인수

【 미국 경제 동향 】

1) 한·미, 9월부터 국세청 금융계좌정보 교환

- 지난 1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에 정식 서명
 - 이는 한국 정부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며 지금까지는 양국 국세청 간 요청이 있어야만 정보교환을 할 수 있어 역외탈세 등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한국인이 소유한 연간 이자가 \$10를 초과하는 예금계좌와 미국 내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 측에 제공
 - 한국은 미국인이 소유한 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와 25만 달러를 넘는 저축성보험 정보를 미국 측에 제공
- 법인 계좌의 경우 미국은 원천소득과 관련된 모든 한국 법인의 금융계좌, 한국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법인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
- 한편, 정부는 조만간 이번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2) “IMF, 위안화 SDR(특별인출권) 편입 안 돼“, 해킹보복 갈 빼든 미국

- 지난 9일 FT는 중국 위안화가 올해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통화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금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보도
 - 이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중국 해커들의 소행으로 판단된데 따른 보복 차원으로 분석

- IMF는 다음 달 이사회 회의를 열고 위안화의 SDR 바스켓 통화 편입 여부와 관련해 기술적 부분을 검토하여 올해 내로 편입 여부를 공식 결정할 계획
 - 지난달 IMF는 지난 1년간 실질실효환율이 상당 수준 절상되면서 위안화는 더 이상 저평가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위안화 편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 반면, 미국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수출이 상당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
 - 미국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과 린제이 그래엄 공화당 상원의원 또한 이번 서한에서 위안화 저평가 주장에 동조하며 중국의 경제 개혁과 통화 및 자본흐름 자유화 노력은 아직까지 바스켓 통화 편입될 만한 자격을 얻기엔 아직 불충분하다고 지적

【 해외 경제 동향 】

1) EU,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하나

- 지난 9일 WSJ은 EU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EU 법무당국이 내년 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
- * 시장경제지위(MES) : 교역상대국의 경제활동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시장원리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것
- EU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기 어렵게 될 것이며 유럽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가 다양한 보조금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어 외국 경쟁사에 비해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EC) 법무당국이 최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 WSJ는 EU의 최종 결정은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몫이며, EU는 현재 중국의 WTO의 가입협정의 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도
- o 한편, 중국 정부와 동맹국들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만큼 협정에 따라 15년 뒤가 되는 내년 12월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최대 무역 파트너인 EU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상황, 중국의 2위 무역상대국인 미국도 앞으로 몇 개월에 걸쳐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

2) 일본 1분기 GDP 성장, 빨라진 경제회복세

- o 지난 8일 일본 내각부는 지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확정치가 전기 대비 1.0% 성장, 시장전망치(0.7%)를 크게 상회한다고 밝힘
- 이는 엔화 약세 덕에 실적이 좋아진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됨
- o 민간 소비는 전분기 대비 0.4% 증가했으며 일본 정부는 올봄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올라 민간 소비지출도 2·4분기 이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
- o 지난 4월 일본 경상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엔저 효과로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1% 증가, 수입은 원유가격 하락으로 5.9% 급감
- o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엔저가 수출기업엔 좋지만 수입 원재료 가격을 올려 일본 소비자의 실질소득 수준을 낮추어 국내 수요 회복을 늦추고 있다며 엔저의 부작용을 지적

【 산업·시장 동향 】

1) 미국 Target, 자사주매입 · 배당확대 계획 사전 유출

- 지난 9일 미국 소매업체 Target의 웹사이트에는 자사주매입 규모를 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확대, 분기 주주 배당을 기존보다 7.7%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이 공개
 - 이는 웹사이트에서 바로 삭제됐으며 Target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는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앞서 트위터도 지난 4월 장 마감 후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정보가 사전 유출되며 주가가 급락세를 보인 바 있었음
 - 반면, Target의 정보 유출은 트위터와 달리 최근의 강한 성장세를 반영한 것이라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
- 한편, 지난 1년간 Target의 주가는 약 37% 상승

2) 도쿄해상, 8.3조원에 미국보험사 HCC 인수

- 지난 10일 니혼게이지신문과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대형 손해보험기업 도쿄해상홀딩스가 미국 보험사 HCC 인수어런스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보도
 - 도쿄해상은 주당 78달러에 HCC를 인수할 방침이며 매입 방식은 현금 지급이 될 전망, 인수는 약 75억 달러(8조 3287억원)로 9일 HCC 종가에서 37.6%의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으로 일본 기업들의 해외 M&A 중 역대 최대 규모
- 니혼게이지이는 도쿄해상이 HCC가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전문성 높은 손해보험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해 자동차 보험 및 화재보험 이외 분야에서 노하우를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

- o 한편, 일본의 인구 고령화 진행으로 보험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일본 보험사들은 이전부터 해외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
- 블룸버그는 지난 5년간 일본 보험사들의 총 인수 규모는 약 275억달러에 이르며 이전까지 가장 큰 인수건은 작년 다이이치 생명보험의 프로텍티브라이프(Protective Life) 매입으로 인수가는 55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